

광주시, 50억 규모 ‘일자리지원 통합설명회’ 연다

8일 광주상의회서 수행기관 참여
가전·車·뿌리산업 중소기업 대상
채용·기술이전·마케팅·교육 안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고용 창출”

광주시가 오는 8일 오후 2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가전·자동차·뿌리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7개 사업 50억원 규모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하고, 광주상공회의소·광주테크노파크·광주디자인진흥원·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광주경영자총협회 등 6개 사업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통합설명회는 수행기관별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또 상담코너를 마련해 맞춤형 지원 상담도 진행한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기업지원통합서비

스와 미래내일일경험 등 기업 지원 연계사업도 함께 안내해 기업들이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광주시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출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38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뿌리산업 플러스 일자리지출사업’과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은 지난달 24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가전

산업은 오는 7일부터 수행기관에서 지원사업을 접수받는다.

‘가전산업 내일 프로젝트’는 가전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고용창출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일전환지원센터(근로자 구직지원, 기업홍보 및 채용지원, 취업역량강화지원) △가전산업스텝업서포트(기업컨설팅) △가전내일전환지원(기술이전, 시제품, 특허, 재직자 교육훈련) △가전 마케팅지원(제품 브랜딩, 판로개척, 재직자 교육훈련) △가전 내일청년특

화지원(채용지원금, 장려금, 작업·근로환경개선 등) △고용기반 구축 등 6개 사업에 31억원을 투입한다.

이게두 노동일자리지정책관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출 지원사업은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며 “미국 관세정책 발효를 앞두고 지역 가전, 자동차, 뿌리산업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아 기업이 성장하고 근로자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롯데백 광주점, ‘한우대축제’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등급의 한우를 특가로 만날 수 있는 ‘한우대축제’ 행사를 4일부터 10일까지 지하1층 식품관 공용홀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 지역 산지인 함평과 전북도 고창에서 건강하게 자란 한우를 만나볼 수 있다. 먼저 행사 시작 첫날인 4일부터 6일까지는 동양축산에서는 1++등급 한우 등심 100g 당 8980원(기간 중 50kg 한정)에 판매하며 녹색한우는 채끝 100g당 8980원에 일 한정 수량으로 선착순 판매한다. 또 행사 전 기간 동안 한우 전 품목을 50% 할인된 가격에 제안한다. 구매 금액대 별 신안 천일염, 사골, 우족, 쌀 등 다양한 감사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롯데온, ‘뷰티 인공지능’ 신규 서비스 출시

데이터 활용 상품 추천

롯데쇼핑 e커머스플랫폼 롯데온(LOTTE ON)이 신규 서비스 ‘뷰티 AI(인공지능)’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뷰티 AI는 수십만 개의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니즈에 딱 맞는 뷰티 상품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뷰티·패션실을 신설하며 버티컬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롯데온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뷰티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내놓은 것이다.

뷰티 AI는 특정 고민에 따라 제품을 추천받거나, 제품 구매 전 AI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데 사용하기 적절하다. 예를 들어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에게 좋은 쿠션 추천해줘’라는 질문을 했을 때 “수분 부족 지성 피부에게는 끈적임 없이 산뜻하면서도 촉촉한 수분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주는 쿠션을 추천합니다”라는

답과 나스, 바닐라코, 아이소이, 정샘물 등의 쿠션을 소개해주는 방식이다.

특히 가장 고민되는 선물용 제품을 고르는 일에 활용도가 높다. ‘3만 원대 이하 호불호가 없는 선물용 바디용품 추천해줘’라는 질문에는 “부담 없는 가격에 누구나 좋아할 만한 향과 촉촉한 사용감의 제품을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물 세트로 추천드려요”라는 답과 더바디샵, 엘리자베스아덴, 비온드, 온더바디 등의 제품을 제시한다.

론칭 기념으로 오는 6일까지 ‘뷰티 AI에게 물어봐’ 이벤트도 진행한다. 뷰티 AI에게 뷰티 제품을 추천받고, 추천 제품 중 원픽 아이템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원픽 아이템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그 외 참여 고객 전원은 엘포인트(L.POINT) 100점을 적립받을 수 있다.

나다운 기자

“광주신세계 확장 지연…인허가 기관 지원 필요”

광주경총 “지역경제 도약 계기” “고용창출·소비 증대 등 효과 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광주신세계의 프리미엄 백화점 확장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광주시를 비롯한 인허가 기관의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오는 2027년 광주종합버스터미널과 부근에 조성될 광주신세계 프리미엄 백화점 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지역 경제계를 비롯한 지역민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1995년 4월 설립 후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백화점이자 랜드마크로서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경제와 문화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상권을 형성하며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

특히 지역 사회 요청에 따라 지자체에 세금을 납부하는 지역 현지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30여 년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고용창출과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도 효과 노릇을 해 오고 있다.

이러한 광주신세계가 지난해 4조 40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쇼핑·문화·예술이 복합된 랜드마크 백화점으로 확장하는 사업 계획안을 제시해 지역 사회로부터 큰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사업계획 대로 진행되면 건설 단계와 운영 단계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광주·전남 상권 형성을 통해 광주시 방문객을 증가시키고 소비 지출 증대로 지역경제를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 발표 1년이 넘었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확장사업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광주경총은 “최근 국내·외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 장기화로 모처럼 광주시가 갖게 된 소비증대, 고용창출, 유통과 문화의 랜드마크 조성 기회가 날아가 버릴까 걱정이 앞서고 있다”며 “인허가 기관인 광주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광주 관문인 광천터미널(유스퀘어) 현대화를 위해서라도 광주신세계 확장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신세계도 지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소상공인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상생방안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경제발전과 광주·전남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광주신세계 프리미엄 백화점 확장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권범 기자

광주은행, 광주도시공사 핸드볼선수단 광고후원

지역 스포츠 성장 기원

광주은행은 지난 2일 광주도시공사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스포츠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기원하는 광고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은행은 선수단의 성적 향상과 지역 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여자 핸드볼 선수단의 훈련 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지역 스포츠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FC의 2024 시즌 선전을 기원하며 통 큰 후원금 40억원을 전달했으며, 우리 고장 출신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의 타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광주은행 자체 스포츠단인 ‘텐텐(Ten Ten) 양궁단’과 ‘비츠로 배드민턴단’을 운영하며 지역 스포츠 스타의 성장을 돕고 있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지역 비인기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표은행과 다방면적 협력을 추진하게 돼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더욱 선전해 광주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후원금이 선수단의 훈련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지역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상의,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시험’ 26일 시행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 인증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26일 ‘2025년도 제1회 경영정보시각화능력(영문명 BI Specialist) 필기시험’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자격시험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방대한 데이터에서 의미있는 정보를 도출하는 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자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손잡고 개발해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무 분야 국가기술 자격시험이다.

지난해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만여 명이 응시했다. 응시생은 20대(43%), 30대(35%)가 가장 많았으며, 임금근로자(53%), 구직자(23%) 순으로 집계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에 이어 새로운 취업 필수 자격증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 SK, LG 등 국내 주요 기업은 채용 시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를 우대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정부도 각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데이터 시각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어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시험의 인기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시험은 단일등급으로 시행되며, 필기(2년간 유효) 합격 후 실기 응시가 가능하다. 필기전형은 △경영정보 일반 △데이터 해석 및 활용 △경영정보시각화 디자인 3개의 과목을 객관식 20문항씩 60분 동안 응시한다. 실기전형은 경영정보시각화 실무 과목으로 △파워BI(Power BI) △테이블로(Tableau) 프로그램을 활용해 70분 동안 컴퓨터로 작업한다.

올해 시험은 필기 2회(4월, 9월) 실기 2회(6월, 11월)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시행된다. 오는 26일 시행되는 1회차 필기시험은 9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또는 코참패스(korchampas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최권범 기자